

전용극장·백화점 등 어린이극 상설 공연 인기

“뽀! 인형극 공연중이에요”

날씨가 추워져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공연장을 찾아 아이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

최근 어린이극 전용 공연장이 인기를 모으고 백화점 등에서도 아동극을 정기적으로 선보이는 등 어린이극 상설 공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롯데마트 월드점점 3층에 문을 연 극단 레미의 어린이소극장은 꼬마 관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어린이극 전용 공연장이다. 200석 규모의 극장에서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회(평일 오후4시, 주말 낮12시·오후2시·4시) 다채로운 어린이극을 공연한다.

지금까지 ‘피노키오’ ‘엄지공주’ 등을 무대에 올렸으며 보통 한달 간격으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는 ‘빨간머리 앤’을 공연중이며 19일부터는 ‘신데렐라’를 무대에 올릴 예정.

티켓 가격은 7천원이며 관객 회의로 등록하면 할인 혜택(2천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610-2802.

롯데시네마 광주점은 1개관을 어린이극 전용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7월 330석을 298석으로 줄이고 무대와 조명 등을 설치, 리모델링을 마친 롯데시네마는 매일 7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주 6회(평일 오전 11시·오후2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2시·4시) 어린이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지금까지 ‘빨간 모자’ ‘개구리 증사 케로로’ 등을 무대에 올려 호응을 얻었으며 7일부터는 올해 마지막 작품으로 ‘미술관에 간 릴리’를 공연할 예정. 티켓 가격은 작품에 따라 다르며 ‘미술관에 간 릴리’는 어른 2만원, 어린이 1만 5천원이다.

롯데시네마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 062-221-1941~4.

광주신세계는 매주 일요일 인형극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극단 레미의 ‘빨간머리 앤’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들이 배우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꼬마 관객들 웃음꽃 가득... 색다른 문화 체험

인형극은 월 3회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파랑새’를 초청해 진행한다. 12월의 경우 9일, 23일, 30일 오후 2시 다목적홀에서 ‘놀부아 놀자!’를 공연할 예정. 티켓 가격은 1천원이며 3세 이상 어린이는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신세계는 또 월1회 마술쇼를 열고 있으며 엄마와 함께 하는 요리특강(참가비 2천원)과 과학특강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사전 접수) 문의 062-360-1502.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백화점 카드 회원의 자

녀(0세~13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클럽’ 회원들을 위해 매월 한차례씩 아동극 공연과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12월의 경우 오는 25일 오후 2시·4시 두차례 9층 크리스탈홀에서 아동극 ‘스쿠루지 영감’을 공연한다. 문의 062-519-2233.

그밖에 극단 코스모스(062-383-6777)와 꼬마 아동극단(062-952-8784)은 각각 5·18문화센터와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로 만나는 ‘평등 세상’

광주인권영화제 6~9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12회 광주인권영화제가 6일부터 9일까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비정규직 필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 영화제는 지금까지 인권운동센터가 주관했던 데서 벗어나 올해 처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용목)를 꾸리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눈길을 끈다.

‘인권, 대략 난감’ 섹션에서는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상영하며 ‘호남 인권별곡’에서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주최한 2007 호남인권 영상 공모전과 청소년영상공모전 입상작을 만날 수 있다.

또 ‘애니로 보는 세상’에서는 인권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모두가 외로운 밤’ ‘발목자’ ‘새’ 등이 상영되며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반 검열’ 등을 만날 수 있는 ‘다름으로 닮은’, ‘반전·가족 빈곤 문제’ 등을 다룬 작품을 만나보는 ‘경계를 넘어’ 섹션 등이 준비돼 있다.

그밖에 ‘파업전야’ ‘상계동 올림픽’ 등 역대 상영작 가운데 회제가

됐던 작품들도 상영된다.

개막식은 6일 오후 7시 30분 열리며 개막작인 ‘필승, 연영석’의 주인공인 연영석씨가 노래 공연과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로비에는 간단한 먹거리를 나눌 수 있는 ‘인권 카페’가 꾸려지며 비정규직 부스와 청소년 인권 부스를 운영한다.

또 사진작가 최진호씨가 ‘바마의 꿈’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지며 뇌병변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토분 전시회도 준비돼 있다. 무료 관람. 프로그램 시간표는 영화제 홈페이지(www.gjhrf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29-7576.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과 삶의 여백

김영삼씨 문인화전

11일까지 서울 학교재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것이 전통 문인화지만 오히려 여백을 색으로 채워넣는 작업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관람객들을 만나는 문인화가 우송현(吳松軒) 김영삼씨는 자신의 새로운 작업을 ‘여백과의 대화’라고 설명한다. 5~11일까지 서울 학교재.

간결함과 여백의 미로 설명되는 전통적인 문인화의 작품에서 벗어나 그가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여백에 색을 채워넣는 ‘과격’이다.

‘맑은 생각’은 목축을 화폭에 배치한 뒤 나머지 공간에 생동하는 구름을 그려넣음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문인화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해준다.

30여년 동안 문인화를 해온 그의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고향 진도의 바다를 화폭에 옮긴 ‘마음 자리’ 연작에서는 화폭을 검푸른 바다색으로 칠한 뒤 화려한 오방색을 배치, 현대적인 미감을 살려내고 있다.



‘마음 자리’

바닷물결을 형상화한 검은 화면 사이로 언뜻 언뜻 보이는 하얀 점들은 자연과 삶의 여백을 상징한다.

동국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뒤 동아미술상, 목우회 특선, 서예문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전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의 02-720-1524.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 3대 오라토리오 헨델의 ‘메시아’

광주건축·도시문화제

20~28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

광주시립합창단 6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합창단이 전주시립합창단과 함께 종교 음악의 대표곡으로 꼽히는 헨델의 대작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무대에 올린다.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는 아름다운 서정(오페라나 종교음악 등에서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과 웅장한 합창, 폭넓은 아리아가 어우러진 대작이다.



연주자 김상희씨가 협연한다. 문의 062-510-9343.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이남·김재성씨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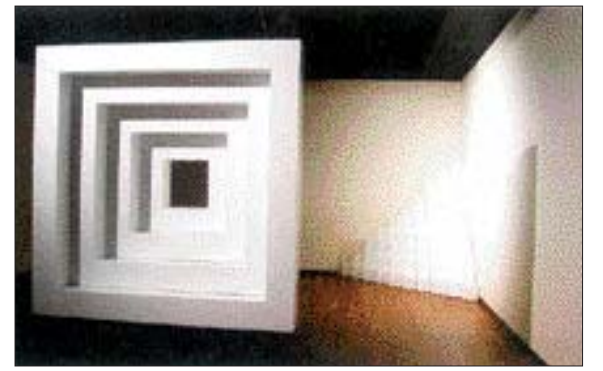
20일까지 일곡갤러리

젊은 작가 이이남씨와 김재성씨가 일곡갤러리에서 20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담양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작업영역인 미디어와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이이남씨는 베르메르의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를 작품의 모티프로 한 디지털 미디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는 영상작업을 통해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화가 베르메르와 허너 그리트의 슬픈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성씨는 순백색 사각형을 중첩한 기하학적 구조물로 인간의 욕망과 허구적인 환영을 형상화했다. 김씨가 채택



김재성 작 ‘절대적 가치’

한 흰색은 물질과 욕망을 희석시키는 중화적인 색상으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동양적인 사고를 대변한다. 문의 062-575-3457~9.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movie listings and theater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Theater, and others,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